

the 96th Regular Concert
JEJU CHOIR

다 폐기 처분해도 좋습니다. 내 음악은 이것으로 시작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표현했고, 평단과 관객을 매료시켰다.

칼·오르프의 출세작이자 대표작으로 일약 그를 유명하게 만든, ‘카르미나·부라나’는 1942년에 작곡된 ‘가톨라·카르미나’와 1951년에 작곡된 ‘아프로디테의 승리’와 더불어 무대형식에 의한 칸타타의 3부작 ‘트리온피 (승리)’의 제1부 작품이다. 이 곡은 주제가 되는 소재를 전개함이 없이 반복하고, 형식이나 화성은 극히 간결하여 일괄된 리듬이 두드러진 음악이며, 또 대위법적 수법을 완전히 배제하고 단선 음악 취급에 의한 투철한 구성상의 단순성을 끝까지 관철시켜 중세의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음악이다. 이 작품이 그의 나이 마흔한 살인 1936년에 발표되자마자 독일 국내에서 큰 반응을 일으키고 그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마침내 히틀러 추종자, 대중적 작곡가라는 오명을 씻고 자신의 삶 뿐 아니라 나치즘이 쓸고 간 정신적 황폐로 허덕이는 국민들의 삶에 역동성을 부여해 주었다.

‘카르미나 부라나’는 반복적 구성, 간결하고 명확한 화성, 오르프 특유의 리듬 진행 등으로 많은 인기를 얻었다. 현대 작곡가 작품이지만 마치 중세시대 작곡가가 만든 곡처럼 들린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르프는 단순한 화음과 고전적인 멜로디를 사용해 극의 효과를 줬으며, 대규모 타악기와 합창을 통해 복잡하면서도 강렬한 리듬감을 강조했다. 특히 대표곡인 첫 곡 ‘오 포르투나(O Fortuna·운명의 여신여)’는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지휘 : 양 은 호



제주특별자치도립 서귀포합창단
지휘 : 김 인 재

다음연주안내

제주합창단 97회 정기연주회
3월 30일(목) 19:30 제주아트센터

제주합창단 기획연주회
4월 27일(목) 19:30 제주아트센터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Jeju Choir

064) 728-2745~7
<http://www.artjeju.or.kr/>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96th
정기연주회
Regular Concert

Carl Orff 칼 오르프

Carmina Burana

카르미나 부라나

2017년 2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제주아트센터
Thu. Feb 2, 2017 at 7:30 p.m. Jeju Arts Center



지휘 양 은 호
Conductor Yang Eun-Ho



소프라노 강 혜 정
Soprano Kang Hye-Jung



테너 강 창 오
Tenor Kang Chang-Oh



바리톤 염 경 목
Baritone Yum Kyung-Mook

합창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 서귀포합창단

Jeju 제주시



Program Note

칼 오르프 / 카르미나 부라나
Carl Orff / Carmina Burana

1803년 독일 뮌헨 남쪽 바이에른 지방의 베네딕트 보이렌의 수도원에서 중세시대 시가집(詩歌集)이 발견됐다. 중세 음유시인들이나 기사들이 즐긴 시와 유행가를 모은 것으로 봄, 술, 여자, 사랑 등에 대한 노래들이 담겼는데, 이 시가집을 흥미롭게 여긴 이가 독일 작곡가 칼 오르프(Carl Orff)다. 오르프는 이 중 24개의 시를 선택해 ‘봄의 노래’ ‘선술집의 장면’ ‘사랑의 이야기’ 등 3부작 형식의 칸타타로 남성합창, 여성합창, 어린이합창,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를 등장시켜 노래하게 하였다. ‘카르미나’는 골리아드(Goliardery: 중세 11~13세기경 학생이나 성직자들이 여러 나라를 편력하며 라틴어로 쓴 세속 시집을 말함)로 일부는 중세 프랑스로, 또는 중세 독일어로 되어있다.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는 모두 3부로 되어 있으며 먼저 서곡 제1곡 - 2곡까지이고 제1부는 ‘봄’이란 주제로 제3곡 - 제10곡, 제2부는 ‘선술집에서’란 주제로 제11곡 - 제14곡, 제3부는 ‘사랑의 풀’이란 주제로 제15곡 - 제24곡까지이며 제25곡은 처음 제1곡이 반복되는 형태이다. 곡의 중심은 합창에 있으며 소프라노, 바리톤, 테너의 독주자들은 부수적으로 설명을 보충하는 정도의 역할을 맡았을 뿐이다. 오늘 연주되는 Two Piano Version은 대규모의 타악기를 써서 강한 액센트의 합창 리듬을 산발적인 화음으로 강조해주고 있다.

1937년 7월 칼 오르프가 출판자 ‘스트레케’에게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이 ‘카르미나 부라나’를 보냈는데, 이곡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고 한다. 그는 출판사에 이 곡을 넘겨주면서 “이제까지 발표한 내 작품들은



Artist Profile
지휘 양 은 호

연세대학교 교회음악과에서 박 종윤교수에게 성악을 사사하고 객 상수 교수의 강의를 통해 지휘수업을 하였다. 졸업 후 서울시립합창단의 단원으로 7년간 활동하며 정기연주, 유명 오페라, 해외(유럽, 대만)연주에 참여하였다.

도미하여 워싱턴 주립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합창지휘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재학 중 저명한 지휘자이자 작곡가이며 줄리아드음대의 교수를 역임한 Abraham Kaplan 교수에게 합창지휘를 사사하였고, 재능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Scholarship을 수여받았다. Dr. Boers가 지휘하는 UW Camber Choir의 단원으로 활동하며 북유럽 발틱삼국 순회 연주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Peter Eros와 Timothy Saltsman에게 오케스트라 지휘를 수학하였다. 워싱턴 주 선교합창단의 지휘자를 10년간 역임하였다.

귀국 후 연세대대학원, 이화여대 대학원, 장신대 대학원, 서울장신대 대학원, 동덕여대, 성공회교회음악대학원, 백석교회음악대학원, 새문안교회음악원에서 강사를 역임하였다. 여러 지휘세미나의 강사를 하였고 한국합창지휘자협회 제 5회 학술세미나에서 전문 지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박사 학위 논문 (합창음향에 대한 좌석배치의 효과)을 주제로 강의하였다. 익산, 안산시립합창단을 객원 지휘하였고 익산시립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5년간 역임, 순천시립합창단 객원지휘자로 1년간 역임하였다. 그의 지휘의 바탕은 오랜 성악 인으로서의 경험으로 형성되어서 합창단원의 개인적 특성을 존중해 편안하고 건강한 발성을 하면서도 적절한 블랜딩과 밸런스를 이루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합창음향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계속해왔고 제주합창단을 통해 그 결실을 이루어 나가리라 기대되는 바이다.



Artist Profile
테너 강 창 오

- 제주대학교/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졸업
- 도립 제주합창단 차석단원



Artist Profile
바리톤 염 경 목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남감리 대학교(SMU), 줄리어드 오페라 센터(JOC) 전액장학 졸업
- 미국 내셔널오페라협회공쿨, 성악교수협회, 팜비치, 달라스오페라공쿨, 한국음악협회 해외파견공쿨 우승, 미국 메트로폴리탄오페라공쿨 동부지역 우승 및 내셔널 파이널리스트, 엔리코카루소, 도쿄국제음악공쿨, 중앙일보공쿨 외 다수 공쿨 입상
- 에미상 (클래식음악 부문-오페라 나비부인) 수상
- 뉴욕시티오페라단 상주단원
- 오페라, 콘서트, 오라토리오 솔로리스트, 예술가곡 연주자로 국내외를 오가며 활발한 활동
- 한국예술종합학교, 울산대학교 성악과 외래교수



Artist Profile
소프라노 강 혜 정

-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
- 미국 뉴욕 매네스 음대 석사 및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 2005년 미국 뉴욕 The Michael Siska Opera Award 수상
- 금호문화재단 주최 영 아티스트 시리즈 초청 독창회
- 부천필 창단 20주년 말러 시리즈 협연, KBS 광복 60주년 기념음악회 출연 외 다수의 시립교향악단과 헨델 메시아, 구노 장엄미사, 모짜르트 대관식 미사, 브람스 독일 레퀴엠, 포레 레퀴엠, 베토벤 합창 교향곡 등 출연
- 2009 일본 도요타 현 콘서트 홀 초청 연주, 교토 챔버 필하모닉 초청 연주, 이태리 피렌체 오케스트라 협연, 2010 테너 호세 카레라스 내한공연 협연
- 서울시 오페라단 '베르디 빅 5' 중 "리골레토" 질다 역 출연, 예술의전당 기획오페라, 대구 오페라하우스, 부천문화재단, 부산솔오페라단, 대전오페라단 등과 피가로의 결혼, 마술피리, 꼬지 판 두떼, 돈조반니, 카르멘, 돈바스팔레, 라보엠,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호프만의 이야기, 사랑의 묘약, 유쾌한 미망인 등 다수의 오페라 주역 출연
- 제 3회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 신인상 수상
- 현) 계명대학교 음악, 공연예술대학 교수



Program

칼 오르프 / 카르미나 부라나 Carl Orff / Carmina Burana

Fortuna imperatrix Mundi / 세상의 지배자 운명의 여신

1. O Fortuna(합창)
2. Fortuna plango vulnera(합창)

I . Primo vere/ 새로운 봄

3. Veris leta facies(합창)
4. Omnia sol temperat(바리톤 솔로)
5. Ecce gratum(합창)

Uf dem anger/목장에서

6. Tanz(무곡)
7. Floret silva(합창)
8. Chramer, gip die varwe mir(합창)
9. Reie(원무곡)
 - Swaz hie gat umbe(합창)
 - Chume, chum geselle min(합창)
10. Were diu werlt alle min(합창)

II .In Taberna / 선술집에서

11. Estuans interrius(바리톤 솔로)
12. Olim lacus colueram(테너 솔로 와 남성합창)
13. Ego sum abbas(바리톤 솔로와 남성합창)
14. In taberna quando sumus(남성합창)

III .Cour d'amours/사랑의 뜰

15. Amor volat undique(소프라노 솔로)
16. Dies, nox et omnia(바리톤 솔로)
17. Stetit puella(소프라노 솔로)
18. Circa mea pectora(바리톤 솔로 와 합창)
19. Si puer cum puellula(바리톤 솔로 와 남성합창)
20. Veni, veni, venias(합창)
21. In trutina(소프라노 솔로)
22. Tempus est iocundum(소프라노, 바리톤 솔로 와 합창)
23. Dulcissime(소프라노 솔로)

Blanziflor et Helena / 블란치플로르 그리고 헬레나

24. Ave formosissima(합창)

Fortuna imperatrix Mundi / 세상의 지배자 운명의 여신

25. O Fortuna(합창)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치지 않습니다.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알람시계 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cellphone and electric devices.

Information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합창단 정기회원 가입안내

제주합창단이 준비한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실 여러분을 모십니다.

제주합창단의 정기연주회에 할인혜택을 받으시고,

제주예술단의 정기·기획·특별연주회 정보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연회비

예 술 단 : 일반 48,000원, 청소년 28,800원

교향악단 : 일반 32,000원, 청소년 19,200원

합 창 단 : 일반 16,000원, 청소년 10,000원

가입방법

1. 사무국 유선 가입신청 : 064)728-2745

2. 계좌입금(본인 실명기재)

계좌번호 : 제주 11-01-031801

예금주 : 제주특별자치도립 제주예술단

